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할머니께 쓰는 편지

양○혁 / 서울창일초등학교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의 첫손자, ○혁이입니다. 매일매일 뵙는 할머니이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할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 꿈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었지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언제나 말씀하시지요. 의사나 치과의사가 되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것은 그 직업이 아니예요. 제가 되고 싶은 직업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과학자예요.

할머니, 저는 5학년 이후로 로봇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연히 인터넷뉴스를 찾아보던 중에 휴보라는 신기한 로봇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휴보를 알게 된 후부터 점점 로봇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평소에 관심이 있던 로봇에 관련된 직업을 찾아본 결과, 기계공학자라는 재미있는 직업을 알아냈어요. 기계공학자는 기계 및 관련 장치 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 이용, 운전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공학인 기계공학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때부터 기계공학자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6학년 1학기가 시작할 무렵에, 책을 살펴보던 도중 유난히 『로봇 박사 데니스 홍의 꿈 설계도』라는 책이 눈에 띄었지요. 그 책에는 데니스 홍 교수님이 만드신 로봇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고, 그 책을 통해 꼭 로봇 박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최근에 국립과학관에서 하는 로봇 특별 전시회에 가서 다양한 로봇들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것 또한 저의 꿈을 확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답니다. 할머니, 제가 기계공학자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인명 구조용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사람들을 구조하시다가 목숨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로봇이 사람 대신에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구할 수 있고 더 이상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계공학자가 되면 완성도 높은 인명 구조용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싶어요.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친구처럼 말동무가 되어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만들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고령층을 위해 편안함을 제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개발한 로봇을 할머니께서 호뭇하게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머니, 제가 이런 멋진 일들을 하려면 노력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로봇에 관심을 갖고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로봇을 나만의 특징을 살려서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로봇 학원을 다니면서 로봇을 꾸준히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존경하는 데니스 홍 교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미래에는 제가 이 편지에 쓴 것처럼 훌륭한 기계공학자가 되어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제가 기계공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꿈을 이루는 그날에 다시 한 번 이 편지를 보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어요. 과정이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편지에 쓴 것처럼 꼭 기계공학자가 되고 말 거예요. 할머니, 건강하셔서 제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꼭 지켜봐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5년 8월 23일

할머니의 손주, ○혁 올림



드림레터 수기전 당선작



첫 선택의 준비운동 ‘드림레터’

강○정 / 학부모

고등학교 진학을 시작으로 진로를 놓고 갈등했던 나의 학창 시절과는 달리, 요즘 아이들은 일찍부터 시작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리 특기를 발견하고 계발하면서 많은 준비의 시간들을 보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야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체험과 실습만이 아이를 크게 키울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 발 빠르게 체험관을 예약하고 아이를 무한정 기다리는 시간들도 보냈었지만,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엄마가 원하는 일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가끔은 냉전 기류가 감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란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교와는 다른 교육과정을 맞이하면서 불안하기 시작했고 뭔가를 더 해줘야 할 거 같고 도와줘야 할 거 같은 압박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한 아이가 주섬주섬 꺼내놓은 안내문들 속에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제2호 중학생 자녀의 진로지도’라는 문구를 보다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작년에도 받아보았던 안내문이었지만 관심 있게 대하던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이의 꿈이 자주 바뀌어 고민이라는 엄마의 글에 ‘애들도 엄마도 집집마다 다 비슷하구나!’ 하고 생각하니 왠지 동지가 된 거 같고 한결 맘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학기 동안 아이가 전달해준 총 17호까지의 ‘드림레터’를 보면서 저는 아이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가던 서점에서 아이의 어떤 분야에서 오래 머무는지 어떤 책들을 좋아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고 휴대폰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때도 무엇을 하는지 슬쩍슬쩍 들여다보며 아이의 관심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드림레터에 소개되는 직업들 중에서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고, 방송콘텐츠마케팅디렉터, 네이미스트, 정밀농업기술자 등 생소한 직업들을 알게 되면 호기심을 갖게 하는 대화로 시작해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찾거나 듣게 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 직업 관련 학과에 대해서도 조금씩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을 마주칠 때마다 “뭔가를 해라”, “싫어”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저녁 시간은 서로 뭔가를 더 알아내어 말해주는 재미가 쏠쏠하게 느껴지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학교는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운영합니다. 한 학기만이라도 꿈과 끼를 찾는 진로 탐색 기회라는 취지와 맞게 드림레터 구독이 준비운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 흥미를 고려해서 선택과목을 결정했습니다. 저 또한 아이의 결정에 대해 잘해보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자신 없어 보이지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아이가 등 떠밀려서 선택하는 진로가 아닌 본인 스스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을 찾아내어 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2학기에 배달될 드림레터도 기대합니다.